

비공식거래 극대화로 이원구조 심화

노병성의 「1980년대 한국출판산업조직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우리의 출판산업은 다른 연대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산업 자체가 불안정한 기초 위에 매우 복잡한 양상 띠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당시의 출판산업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연구자들의 작업은 손쉽게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런 현실에서 80년대 10년 동안 우리 출판산업의 시장구조와 출판행위, 그리고 국가개입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노병성 씨의 「1980년대 한국출판산업의 산업조직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그것.

노씨는 이 논문에서 80년대 우리의 출판산업은 다수의 영세한 출판사들 가운데서 기업화한 소수의 대형출판사들이 과점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출판산업의 이원적 구조가 심화된 시기였으며, 아울러 이 시장에서는 수요관리 및 생산요소 관리에 있어 비공식거래가 극대화된 시기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출판산업은 시장실패에 의한 국가개입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국가의 성격으로부터 파생된 국가의 개입이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다.

80년대 한국출판산업의 시장구조

학습참고서시장은 국가의 입시정책에 의해 형성되고 시장구조가 결정된다. 교과서 제도를 자유발행제로 채택하고, 입시제도가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테스트하는 국가고시제로 되어 있을 경우 학습참고서 시장의 형성은 거의 어려운데, 국·검정 제도의 교과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 시장은 과점구조로 이뤄진다. 특히 1980년대의 높은 교육열은 학습참고서시장에 충분한 수요를 창출해 주었으며 상품을 차별화할 이유가 없어 당연한 과점구조를 띠었다.

아동도서는 지적발달이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개발이 목적인만큼 책의 내용은 대체로 사회화나 지능개발을 위한 학습교재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 내용은 주로 전설이나 우화, 민담, 위인전기, 명작소설 등이 차지하는데, 이는 곧 상품차별화가 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0년대 우리사회는 국민소득이 5천불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아동도서의 수요를 확대시켜 주었다. 이같은 배경은 아동도서 시장에 대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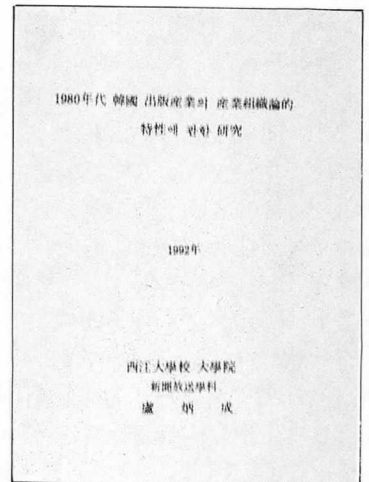
80년대 독점적 경쟁구조하의 하위시장으로는 종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도서시장이 있다. 이들 하위시장에서는 뚜렷하게 부각되는 대기업이 없이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기업에 의해 책이 생산·공급되었다. 이런 구조하에서 출판사들은 차별화한 상품을 다양하게 생산해왔는데, 기업당·발행종수당 생산량은 매우 적었으며, 따라서 과점구조가 교과서나 참고서 시장에 비해 덜 이뤄졌다. 80년대 소규모의 기업진출이 활발했던 대표적인 하위시장은 문학과 사회과학 시장 두 곳이다.

이들 하위시장의 출판사들은 생산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으며, 생산의 대부분을 하청을 통해 해왔다. 소유형태에서 이들은 대부분

80년대 출판산업은 다수의 영세한 출판사들 가운데서 기업화한 소수의 대형출판사들이 과점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출판산업의 이원적 구조가 심화된 시기였으며, 아울러 수요관리와 생산관리에 있어 비공식적인 거래가 극대화된 시기였다. 또한 국가의 출판산업에 대한 개입이 유무형으로 존재했었다.

개인회사였으며, 자산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종업원 수도 10명 이하인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하위시장에 참가한 대형출판사들은 우수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산규모에서도 수백억대에 이르며, 생산규모의 면에서나 종업원 규모, 매출액 규모에 있어 독점적 경쟁구조하의 하위시장에 참여하는 중소출판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년대 출판산업에서 교과서와 학습참고서, 아동도서 등의 과점기업들은 발달된 유통기구를 갖추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의 유통구조는 매우 취약해 전형적인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1980년대 경인쇄 기술과 복사기술의 발달은 출판산업에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특히 80년대 후반까지는 국제저작권법의 영향 밖에 있어 암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80년대의 암시장은 마스터 기계에 의한 해적판 시장과, 복사기술의 발달에 의한 복사시장 및 덤핑시장이 있었다. 이때 마스터기계나 옴셋인쇄에 의한 해적판시장은 대학교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무단복사시장은 대학교재를 비롯해 학습참고서 시장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출판물의 시장행위

출판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 즉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책들은 다양한 시장행위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출판산업에서 수요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개별기업의 시장영역 확장을 위한 기본행위는 광고이다. 광고는 행해진 만큼 시장영역이 개척된다는 의미에서 개별기업들은 필수적으로 광고비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80년대 한국 출판산업에서 총매출액 중

“그 책 읽어 봤어?”
“재미는 있지만 별로 얻을 게 없어!”
“좋은 책이지만 솔직히 재미는 없더군.”

늘 한구석이 허전한 독서... 그러나 이제부터 정신세계사의 책으로 후회없는 책읽기를 경험하십시오

식물의 정신세계

식물의 놀라운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 흥미로운 실험과 그 뒷이야기들, 방대한 참고문헌.
“참으로 흥미롭고 감동적인 책.....
아! 이 겨울에 불일암 후박나무는 별고없이 잘 있는가?” (法頂 스님)

피터 톨킨스 외 / 황정민 외 옮김 / 504면 / 7,500원

장편소설 神의 뜰에서 놀며

아마존의 오지로 들어간 백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그들의 총과 성경책은 쓸모 없는 헛덩어리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용병과 선교사, 원주민과 그들을 지배하는 스페인 식민주의자의 후예들, 칼잡이, 창녀, 백인의 神과 인디오의 神들이 펼쳐는 아마조나스의 서사시.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야심작.
피터 매티센 / 김석희 옮김 / 전2권 / 각권 4,500원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뜻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찾아 인류 미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마을 열여덟 곳을 직접 가본다. 참된 노동과 헌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책.

울리버 포피노 외 / 이천우 옮김 / 376면 / 6,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 회원제 운영)

출판사 광고비지출 과다하다

전년비 51.7%나 증가... 매체별로는 신문이 1위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컸다. 광고 자체도 경제논리가 적용됨에 따라 주요 과점 기업들은 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전면광고를 실시하는 반면, 영세한 출판사들은 광고단가가 비교적 싸고 전국을 커버하는 신문매체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는 수요전략의 한 방법으로 '교재 채택료'라는 비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교과서와 학습참고서시장에서 주로 발생한 이 비공식 거래행위는 도서의 집단적 소비가 이뤄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출판사들이 불확실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80년대 한국 출판산업의 한 특징을 이뤘다.

또하나의 비공식적 거래의 사례로 교과서 발행권 취득을 둘러싼 출판사들간의 과당경쟁을 들 수 있다. 80년대에는 2종 교과용 도서의 경우 검정제를 실시하여 그 발행여부를 문교부가 관장했었다. 검정에 통과하여 발행권을 획득하느냐의 여부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시장에 진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행권을 취득하기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비공식 거래가 공공연히 일어났다.

또한 출판산업에서 가격담합은 국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명시적인 것은 '재판매가격 유지제도' 이외에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학습참고서 시장 등에서 대기업에 의한 가격선도를 따라감으로써 파생되는 묵시적인 담합은 향존해 왔다.

생산요소의 부문에서, 저자는 상품차별화

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다. 따라서 각 출판사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저자를 선택하는데 안간힘을 쓰게 된다. 이는 출판사들이 저자를 '스타' 위주로 선택함을 의미한다. 출판사들은 스타에 해당하는 저자를 선택하려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인기작가를 입도선매한다든지 전속계약제를 실시하는 등 80년대 한국 출판산업에서는 소위 스타라는 저자를 둘러싼 다양한 유형의 전략적 행위가 발생한다.

출판산업에 있어 국가의 개입

1980년대 한국의 출판산업에 국가는 '부교재가격사정제도'나 저자에 대한 창작비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개입한다. 또한 국가는 출판산업에서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독서교육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의 것이 시장실패를 우려한 국가의 개입이었다면 이와는 무관한 국가의 성격으로부터 파생된 개입도 있었다.

예를들어 제 5공화국에서는 출판사의 신규등록을 일체 불허했는데, 그 방법은 주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행정적인 통제를 통해 이뤄졌다. 또한 납본필증을 교부하지 않아 '금서'로 만들기도 하는데, 80년대 납본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기준이나 도서 소비를 차단하는 법으로는 국가보안법, 관세법, 우편물임시사속법 등이 있었다.

— 정혜옥 기자

출판계의 지속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출판광고비는 91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현상은 기존의 출판광고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나, 아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습지 광고에 단행본출판물 광고가 가세하면서 신장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출판계 일부에서는 출판사들의 과다한 광고비 지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광고데이터가 집계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대매체를 통한 92년 광고통계에 따르면 출판광고비는 전체 광고비 2조 4620억원의 6.4%로 업종별로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광고비는 91년에 비해 51.7%나 증가한 액수이다. 또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광고비 2조8159억원의 5.2%인 1154억원을 차지, 91년에 비해 43.3%의 신장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통계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집계기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출판광고를 점유하는 매체별 비중은 신문이 83.3%로 아직까지 신문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V 9.2%, 잡지 라디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체별 신장율은 신문의 증가율이 49.6%인데 비해 TV와 라디오는 각각 57.9%와 95.2%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 출판광고가 기존의 신문매체에서 전파매체로 전이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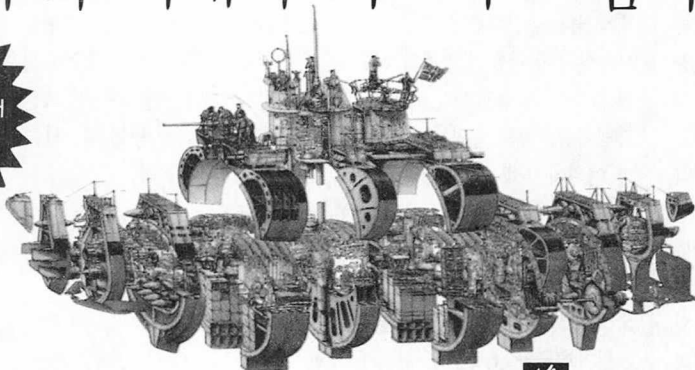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92년 신간도서 발행량 및 평균부수 가격'에 의하면 발행부수의 성장율이 15%의 저성장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출판광고가 40% 이상 늘어났다는 것에 출판계에서는 과다한 출판광고가 출판계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을 가중시켜 여타의 출판물을 더욱 깊은 불황으로 몰아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단행본출판물의 경우 책 내용이 아닌 광고로 베스트셀러를 급조하려는 과장광고 경향이 나타나 출판사의 윤리성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처지이다. 과다한 광고비는 또한 독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책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있는데 출판협회가 통계에 산정하지 않은 중판도서를 포함, 92년 총발행부수를 2억5천만부, 1조8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광고비로 인해 책 한 권당 460원에서 630원에 달하는 책값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금액을 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광고를 많이 한 출판사는 고려원, 대교출판, 웅진출판사, 계몽사, 장원, 재능교육의 순으로 모두 20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 이성수 기자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그림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동시 출판된 초특급 베스트셀러!



탱크, 점보 제트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지금까지 걸 모습만 보아 왔던 거대한 구조물 18가지를 가로 세로로 세밀하게 잘라, 그 내부의 구조며 명칭을 아주 자세히 보여 주는 희한한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부터 건축·미술의 전문가까지 누구나 한 번은 꼭 봐야 할 이 시대의 뛰어난 가족형 그림책 「크로스 섹션」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울컬러·양장본/책크기 27cm×36cm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